

1. 다음 <표>는 甲국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甲국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8월)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인원	70,949	70,333	73,099	73,207	50,866
	지원금액	2,858	2,881	3,019	3,263	2,309
유산·사산 휴가급여	지원인원	1,096	1,094	1,211	1,250	1,043
	지원금액	14	14	15	16	13
육아휴직 급여	지원인원	112,040	110,555	131,087	126,008	93,244
	지원금액	12,155	13,004	16,614	17,970	13,425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지원인원	14,698	16,689	19,466	23,118	18,575
	지원금액	517	884	1,063	1,303	10,100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인원	18,720	18,270	16,168	15,797	11,680
	지원금액	70	68	61	62	47
합계	지원인원	217,503	216,941	241,031	239,380	175,408
	지원금액	15,614	16,851	20,772	22,614	25,894

<보 고 서>

甲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 전후 임신부의 건강과 생계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 2022~2024년 동안 甲국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 중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원금액은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하였다. 유산·사산휴가급여는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90일까지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2021~2024년 동안 유산·사산휴가급여의 1인당 지원금액은 매년 120만원 이상이다. 육아휴직급여는 甲국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핵심으로 가장 규모가 큰 제도이다. ㉢ 2025년 9~12월 육아휴직급여의 월평균 지원금액이 2025년 1~8월까지의 육아휴직급여의 월평균 지원금액과 동일한 경우 2025년 연간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은 2024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다.

최근 甲국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가 각광 받고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인당 지원금액은 2023년이 2024년 보다 크다. 반면 ㉤ 甲국 전체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원인원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2024년 동안 전년 대비 매년 감소하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 다음 <표>는 국토외곽 섬의 생활여건 지수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을 근거로 A~E(대청도, 백령도, 소연평도, 소청도, 울릉도) 중 A와 C에 해당하는 섬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표> 국토외곽 섬의 생활여건 지수

분야 구분	공공행정	인프라	교육	건강	생활서비스
A	0.31373	0.61667	0.70565	0.62955	0.34627
B	0.28431	0.56333	0.32828	0.12039	0.13821
C	0.08824	0.39667	0.00000	0.02083	0.00000
D	0.05882	0.25667	0.00000	0.02083	0.06090
E	1.00000	0.62000	0.75899	0.53457	1.00000
43개 국토외곽 섬 평균	0.09006	0.31496	0.09150	0.07820	0.05033

※ 제시된 분야 외에는 조사하지 않음.

<조 건>

- 울릉도는 건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생활여건 지수가 A~E 중 가장 크다.
- 대청도의 생활여건 지수는 모든 분야에서 43개 국토외곽 섬 평균 생활여건 지수보다 높다.
- 소연평도의 생활여건 지수는 모든 분야에서 대청도 생활여건 지수의 50% 이하이다.
- 소청도의 생활여건 지수와 소연평도의 생활여건 지수는 1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43개 국토외곽 섬 평균 생활여건 지수보다 낮다.
- 공공행정, 인프라, 교육,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백령도는 생활여건 지수가 A~E 중 두 번째로 크다.

- | | | |
|---|----------|----------|
| | <u>A</u> | <u>C</u> |
| ① | 울릉도 | 소청도 |
| ② | 울릉도 | 소연평도 |
| ③ | 백령도 | 대청도 |
| ④ | 백령도 | 소청도 |
| ⑤ | 백령도 | 소연평도 |

3. 다음 <표>는 2023~2025년 甲국 자연재난 원인별 복구비용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2023~2025년 甲국 자연재난 원인별 복구비용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태풍	지원복구 비용	국비	147,517	1,074,333	1,209,725
		지방비	56,426	351,837	389,468
	자체복구 비용		93,378	237,510	465,799
호우	지원복구 비용	국비	52,825	552,406	35,306
		지방비	21,295	161,412	25,087
	자체복구 비용		30,798	66,484	50,245
대설	지원복구 비용	국비	94,692	518,947	1,096,049
		지방비	35,130	188,260	315,491
	자체복구 비용		58,330	153,674	406,357
폭염	지원복구 비용	국비	1,690	1,262	749
		지방비	928	707	843
	자체복구 비용		243	276	264

- ※ 1) 복구비용 = 지원복구 비용 + 자체복구 비용
2) 국비의존율(%) = $\frac{\text{국비}}{\text{국비} + \text{지방비}} \times 100$
3) 자연재난 원인은 태풍, 호우, 대설, 폭염으로 한정함.
- ① 2023년 대비 2025년 자체복구 비용의 증가율이 가장 큰 자연재난 원인은 대설이다.
② 2023년 자연재난 원인별 복구비용 중 자체복구 비용의 비중은 호우가 대설보다 크다.
③ 2025년 폭염 지원복구 비용의 국비의존율은 50% 이상이다.
④ 2026년 자연재난 원인별 복구비용이 전년 대비 5% 증가한다면 자연재난 복구비용의 합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자연재난 원인은 태풍과 대설이다.
⑤ 2024년 태풍 지방비 지원복구 비용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4년 태풍 국비 지원복구 비용의 전년 대비 증가율보다 크다.

4. 다음 <표>는 2025년 甲국 간호조무사 시험결과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25년 甲국 간호조무사 시험결과
(단위: 점)

응시자 \ 과목	기초간호학	보건간호학	공중보건학	정신간호학	총점
A	28	10	()	21	73
B	()	8	10	20	()
C	20	6	8	18	()
D	22	10	10	16	()
E	27	12	16	22	()
F	25	()	16	13	68

- ※ 1) 간호조무사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35점 만점), 보건간호학(15점 만점), 공중보건학(20점 만점), 정신간호학(35점 만점) 4과목 총점 105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2) 합격자는 전 과목 만점의 60% 이상 및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임.
3) $\text{정답률}(\%) = \frac{\text{각 과목의 시험점수}}{\text{각 과목의 만점점수}} \times 100$
4) 2025년 甲국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는 A~F만 있음.
- ① A의 시험결과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과목은 정신간호학이다.
② 甲국의 간호조무사 시험과목별 응시자의 평균 점수는 보건간호학이 공중보건학보다 낮다.
③ F의 기초간호학 시험점수가 35점으로 변경되면 합격자 중 총점이 가장 높다.
④ A~F 중 총점이 가장 높은 응시자는 E이다.
⑤ A~F 중 합격자는 3명일 수 있다.

5. 다음 <표>는 2019~2023년 甲국의 벌금 수입 및 회계별 전출금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2019~2023년 甲국의 벌금 수입 및 회계별 전출금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벌금 수입		12,903	11,645	10,210	10,648	()
제반비용		1,015	745	()	804	960
일반회계 전출금	계획액	6,152	6,208	5,345	5,227	4,953
	지출액	6,077	6,065	5,277	5,403	5,125
	법정전출금	5,944	()	()	4,922	()
범죄관리회계 전출금	계획액	2,150	2,310	2,418	2,420	2,400
	지출액	2,120	2,435	2,390	2,474	2,595
	법정전출금	2,378	()	1,867	()	()
피해자 보호회계 전출금	계획액	3,318	3,395	3,256	3,090	3,150
	지출액	3,496	3,500	3,309	3,160	3,215
	법정전출금	3,566	3,270	()	2,953	3,440

※ 1) 법정전출금 = (벌금 수입 - 제반비용) × 법정비율

2) 법정전출금 산정에 필요한 법정비율은 일반회계 전출금 50%, 범죄관리회계 전출금 20%, 피해자보호회계 전출금 30%임.

3) <표>의 수치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① 2020년 피해자보호회계 전출금의 지출액에서 법정전출금을 뺀 값은 3억달러 이상이다.

② 2021년 제반비용은 9억달러 미만이다.

③ 2023년 벌금 수입은 2019년 벌금 수입보다 많다.

④ 2019년 계획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범죄관리회계 전출금이 일반 회계 전출금보다 크다.

⑤ 2021~2023년 범죄관리회계 전출금의 법정전출금은 매년 전년 대비 증가한다.

6. 다음 <표>는 2022~2025년 甲국 영화 장르별 상영 실적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2~2025년 甲국 영화 장르별 상영 실적

(단위: 회,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영 횟수	관객 수	상영 횟수	관객 수	상영 횟수	관객 수	상영 횟수	관객 수
액션	6,359	6,838,119	6,068	5,347,331	5,095	6,669,780	5,969	5,948,625
드라마	5,205	12,472,150	5,401	13,238,845	4,879	13,595,834	4,757	9,532,947
로맨스	2,447	1,467,420	2,268	1,081,221	1,978	1,008,143	2,512	1,144,704
SF	12,874	5,364,204	13,948	5,028,958	13,269	4,356,045	14,078	4,952,884
공포	3,239	1,050,661	3,511	1,069,329	3,716	1,038,946	3,949	1,141,007
스릴러	3,927	3,444,894	3,921	3,285,600	3,631	3,158,779	3,454	2,979,671

※ 영화 장르는 액션, 드라마, 로맨스, SF, 공포, 스릴러로만 구분됨.

<보 기>

ㄱ. 2023~2025년 동안 액션 영화 상영 횟수와 로맨스 영화 상영 횟수의 전년 대비 증감 방향은 동일하다.

ㄴ. 2022~2025년 동안 드라마 영화의 관객 수는 매년 전체 영화 관객 수의 40% 이상이다.

ㄷ. 2025년 전년 대비 상영 횟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영화 장르는 2025년 전년 대비 관객 수의 증가율도 가장 높다.

ㄹ. 2022년 상영 횟수당 관객 수가 500명 이상인 영화 장르는 3개 이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7. 다음 <표 1>, <표 2> 및 <표 3>은 2023~2025년 국제개발협력(ODA)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2023~2025년 국제개발협력(ODA)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ODA		47,771	62,629	65,010
	양자간 원조	36,739	51,282	54,451
	유상원조	15,030	20,320	21,500
	무상원조	21,709	30,962	32,951
	다자간 원조	11,032	11,347	10,559

※ ODA는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구성되어 있고, 양자간 원조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구성됨.

<표 2> 2025년 지역별 양자간 원조 규모
(단위: 억원)

구분	합계	유상원조	무상원조
아시아	18,194	11,998	6,196
아프리카	10,059	5,110	4,949
중동·CIS	4,417	2,140	2,277
중남미	3,870	1,872	1,998
오세아니아	567	128	439
기타	17,344	252	17,092

<표 3> 2025년 분야별 양자간 원조 규모
(단위: 억원)

구분	합계	유상원조	무상원조
인도적 지원	9,019	0	9,019
교통	7,735	()	750
공공행정	()	2,012	2,154
보건	3,957	1,777	()
에너지	3,859	()	1,165
교육	()	328	3,455
농림·수산	3,396	651	()
수자원·위생	2,983	()	628
환경보호	()	574	998
산업	1,015	55	960
통신	1,003	869	134
기타	11,963	3,200	8,763

- ① 2023~2025년 중 양자간 원조가 ODA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연도는 2025년이다.
- ② 유상원조 대비 무상원조 비율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전년 대비 증가한다.
- ③ 2025년 전체 유상원조에서 중남미의 유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5년 전체 무상원조에서 중동·CIS의 무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크다.
- ④ 2025년 분야별 유상원조와 분야별 무상원조를 원조 규모가 큰 순서대로 기타를 제외하고 나열하면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순위가 동일한 분야는 1개이다.
- ⑤ 2025년 분야별 양자간 원조 규모에서 무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공공행정이 보건보다 작다.

8. 다음 <표>는 甲국의 3~7대 지방의회 의원선거 전체 후보자 수 및 여성 후보자 비율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甲국 3~7대 지방의회 의원선거 전체 후보자 수 및 여성 후보자 비율 현황
(단위: 명, %)

구분		3대 선거		4대 선거		5대 선거		6대 선거		7대 선거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광역	지역구	1,528	3.1	2,062	5.2	1,610	9.6	1,719	11.5	1,886	14.5
	비례대표	208	55.3	211	64.5	266	67.3	228	70.6	295	70.8
기초	지역구	8,353	2.6	7,968	4.9	5,822	9.5	5,377	14.1	5,318	18.7
	비례대표	-	-	1,017	73.3	909	80.0	742	90.0	882	90.6

- ※ 1) 甲국 지방의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뉘며, 각 지방의회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됨.
- 2) 3대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비례대표 의원선거를 실시하지 않음.
- 3) <표>에 주어진 선거 외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음.
- 4) 전체 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보 기>

- ㄱ. 7대 선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구의원 여성 후보자 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의원 여성 후보자 수보다 적다.
- ㄴ. 5대 선거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체 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의 비율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체 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의 비율보다 크다.
- ㄷ. 6대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선거의 남성 후보자 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많다.
- ㄹ. 4대 선거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구의원 여성 후보자 수는 매 선거마다 직전 선거에 비해 증가한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9. 다음 <표 1>, <표 2>는 2024년 동종재범·이종재범의 재범기간 및 범죄 종류에 대한 자료이다. <표 1>, <표 2>와 <조건>을 근거로 B, E, G에 해당하는 범죄 종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표 1> 2024년 동종재범의 재범기간 및 범죄 종류
(단위: 건)

범죄 종류	재범기간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A	18,896	35,808	43,742	51,591	13,379
B	283	649	968	1,289	769
C	3,587	8,119	11,869	14,981	11,133
D	112	270	318	386	103
E	1	4	4	6	4
F	229	607	837	1,065	1,364
G	22	41	66	93	122
기타	876	2,076	2,939	3,666	1,668

<표 2> 2024년 이종재범의 재범기간 및 범죄 종류
(단위: 건)

범죄 종류	재범기간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A	10,934	27,639	39,584	51,721	72,189
B	1,058	2,417	3,681	4,848	7,303
C	5,740	14,332	22,423	29,811	51,576
D	293	786	1,100	1,417	2,473
E	8	20	34	60	252
F	584	1,865	2,947	4,108	8,211
G	140	360	597	849	3,310
기타	2,512	6,543	10,216	13,580	20,918

※ 이종재범은 과거에 저지른 범죄와 죄명, 성격, 수단 등이 다른 새로운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으로 산정 시 최초의 범죄 종류로 분류됨.

<조 건>

- A~G는 공무원범죄, 과실범죄, 위조범죄, 재산범죄, 폭력강력범죄, 풍속범죄, 흉악강력범죄 중 하나이다.
- 2024년 A~G 중 3년 이내 이종재범 건수 대비 3년 초과 이종재범 건수의 비율이 가장 큰 범죄는 공무원범죄이다.
- 2024년 매 재범기간마다 흉악강력범죄와 폭력강력범죄의 이종재범 건수 합계는 재산범죄 이종재범 건수의 60% 이상이다.
- 2024년 매 재범기간마다 풍속범죄 동종재범 건수는 과실범죄 동종재범 건수의 10배 이상이다.
- 2024년 A~G 중 재범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동종재범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범죄는 폭력강력범죄이다.
- 2024년 A~G 중 이종재범 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는 재산범죄이다.

B

E

G

- | | | | |
|---|--------|-------|------|
| ① | 흉악강력범죄 | 공무원범죄 | 과실범죄 |
| ② | 폭력강력범죄 | 위조범죄 | 과실범죄 |
| ③ | 폭력강력범죄 | 공무원범죄 | 풍속범죄 |
| ④ | 흉악강력범죄 | 재산범죄 | 과실범죄 |
| ⑤ | 흉악강력범죄 | 공무원범죄 | 풍속범죄 |

10. 다음 <표 1>, <표 2>는 2020~2024년 공공기관 유형별 정부순지원수입 현황과 기타공공기관 유형별 정부순지원수입 및 총수입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20~2024년 공공기관 유형별 정부순지원수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시장형 공기업	18,270	23,092	25,280	18,194	22,786
준시장형 공기업	42,060	54,666	53,465	50,402	57,235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72,653	385,774	445,054	560,003	620,91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39,159	372,112	397,826	394,543	424,025
기타공공기관	153,905	142,929	148,204	156,801	155,592
합 계	926,047	978,573	1,069,829	1,179,943	1,280,557

※ 정부순지원수입이 발생한 기관은 주어진 공공기관 외에는 없음.

<표 2> 2020~2024년 기타공공기관 유형별 정부순지원수입 및 총수입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 타 공 공 기 관	은 행 형	정부순지원수입	()	()	()	()
		총수입	()	()	()	()
		비중	3.3	1.6	0.4	0.3
	비 은 행 형	정부순지원수입	()	()	()	()
		총수입	425,491	489,477	509,706	528,926
		비중	26.9	26.2	27.7	29.0
	합 계	정부순지원수입	153,905	142,929	148,204	156,801
		총수입	()	()	()	()
		비중	9.6	10.0	7.1	9.1

- ※ 1) 비중(%) = $\frac{\text{정부순지원수입}}{\text{총수입}} \times 100$
2) 비중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보 기>

- ㄱ. 2022년 준시장형 공기업 및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정부순지원수입이 2022년 전체 정부순지원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전년 대비 감소했다.
- ㄴ. 2024년 전년 대비 정부순지원수입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 유형은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 ㄷ. 2020년 은행형 기타공공기관의 총수입은 2020년 비은행형 기타공공기관의 총수입의 2배 이상이다.
- ㄹ. 비은행형 기타공공기관의 정부순지원수입은 2023년이 2021년 보다 크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11. 다음 <표 1>, <표 2>는 2022년과 2023년 성별 일자리 이동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23년 성별 일자리 이동 현황
(단위: 천명)

구분	2023년 등록취업자			
	합계	진입자	유지자	이동자
전체	26,145	3,646	18,548	3,951
남성	14,692	1,802	10,583	2,307
여성	11,453	1,844	7,965	1,644

※ 유지율(%) = $\frac{\text{해당 연도 유지자}}{\text{해당 연도 등록취업자}} \times 100$

<표 2> 2022년 성별 일자리 이동 현황
(단위: 천명)

구분	2022년 등록취업자			
	합계	진입자	유지자	이동자
전체	26,058	3,911	18,027	4,120
남성	14,694	1,937	10,336	2,421
여성	11,364	1,974	7,691	1,699

※ 유지율(%) = $\frac{\text{해당 연도 유지자}}{\text{해당 연도 등록취업자}} \times 100$

<보 기>

- ㄱ. 2023년 여성 등록취업자 중 여성 유지자 수는 여성 진입자 수의 4배 이상이다.
- ㄴ. 2023년 남성 등록취업자 중 남성 이동자 대비 남성 진입자의 비율은 80% 미만이며 이는 2022년에 비해 감소했다.
- ㄷ.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등록취업자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여성 등록취업자의 증가율보다 크다.
- ㄹ. 2022년 남성 유지율과 2023년 남성 유지율의 차이는 2%p보다 크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2. 다음 <표 1>, <표 2>는 A시와 B시의 연도별 예산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A시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2022년	1,523,038	427,965	1,951,003
2023년	1,688,922	485,801	2,174,723
2024년	1,722,835	486,577	2,209,412
2025년	1,874,484	481,090	2,355,574
2026년	2,187,790	298,335	2,486,125

※ A시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만 구분됨.

<표 2> B시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2022년	984,446	265,220	1,249,666
2023년	1,094,510	()	1,375,349
2024년	1,134,229	()	1,398,565
2025년	1,085,386	325,007	1,410,393
2026년	1,222,957	287,994	1,510,951

※ B시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만 구분됨.

<보 기>

- ㄱ. 2027년 A시 일반회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6년 A시 일반회계의 전년 대비 증가율과 동일할 때, 2027년 A시 일반회계는 2.5조원보다 적다.
- ㄴ. 2024년 B시 특별회계는 2023년에 비해 감소했다.
- ㄷ. 2027년 B시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20% 증가하고 B시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5% 증가한다면, 2027년 B시 전체 예산은 17% 이상 증가한다.
- ㄹ. 2025년 A시 특별회계 대비 B시 특별회계의 비율은 65% 이하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ㄱ, ㄹ
- ⑤ ㄴ, ㄷ

13. 다음 <표 1>, <표 2>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총액과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
(단위: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정규직 근로자	17,233	17,586	18,404
기간제 근로자	17,517	17,972	19,588
단시간 근로자	15,515	15,741	15,883
일일 근로자	21,416	21,907	23,292
파견 근로자	16,010	16,080	17,047
용역 근로자	13,290	13,681	15,209

※ 1) 시간당 임금총액 = $\frac{\text{월평균 임금총액}}{\text{월평균 총 실근로시간}}$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주어진 고용형태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

<표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
(단위: 시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정규직 근로자	111.7	111.0	105.8
기간제 근로자	167.1	169.7	159.4
단시간 근로자	76.1	74.0	71.9
일일 근로자	79.9	80.0	79.0
파견 근로자	160.1	163.8	158.3
용역 근로자	167.8	171.8	165.2

<보 기>

ㄱ. 비정규직 근로자 중 2022년 대비 2024년 시간당 임금총액의 증가율이 가장 큰 고용형태는 용역 근로자이다.

ㄴ. 비정규직 근로자 중 2024년 전년 대비 시간당 임금총액이 가장 적게 증가한 고용형태와 2024년 전년 대비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이 가장 적게 감소한 고용형태는 동일하다.

ㄷ. 비정규직 근로자 중 2022~2024년 동안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큰 고용형태는 매년 기간제 근로자이다.

ㄹ. 비정규직 근로자 중 파견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24년 전년 대비 증가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4. 다음 <표 1>, <표 2>는 하트세이버 수여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2020~2024년 연도별 하트세이버 수여 현황
(단위: 건, 명)

연도	수여건수	수여인원				
		합계	구급대원	상황요원	모범시민	기타
2020	1,131	5,674	4,633	()	481	413
2021	1,058	5,110	4,080	()	409	472
2022	1,169	5,667	4,506	99	412	650
2023	1,330	6,683	5,181	175	483	844
2024	1,170	5,501	4,346	187	422	546

<표 2> 2024년 본부별 하트세이버 수여 현황
(단위: 건, 명)

본부	수여건수	수여인원				심정지 환자
		구급대원	상황요원	모범시민	기타	
서울	176	795	32	73	45	4,503
부산	62	290	4	21	28	2,426
대구	82	311	8	26	17	1,240
인천	64	279	17	16	8	1,824
광주	32	140	0	6	3	701
대전	19	79	0	8	5	741
울산	25	94	5	12	3	669
세종	8	41	2	3	7	157
경기	281	950	55	93	210	7,972
강원	32	115	9	10	4	1,305
충북	61	177	5	20	28	1,400
충남	84	245	22	33	45	1,797
전북	45	195	10	18	62	1,460
전남	29	81	0	8	8	1,636
경북	61	185	0	21	28	2,036
경남	44	143	2	15	14	1,948
창원	28	113	6	6	0	635
제주	37	113	10	33	31	622
합계	1,170	4,346	187	422	546	33,072

※ 제시된 본부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

- ① 하트세이버 수여건수 대비 하트세이버 수여 구급대원 수는 2023년이 2021년보다 크다.
- ② 2024년 하트세이버 수여 모범시민 중 충남본부 모범시민의 비율은 2024년 하트세이버 수여 구급대원 중 대구본부 구급대원의 비율 보다 크다.
- ③ 2024년 전체 본부 평균 하트세이버 수여건수는 2024년 인천본부 하트세이버 수여건수보다 적다.
- ④ 2024년 서울, 인천, 경기본부의 심정지 환자 중 서울본부 심정지 환자의 비율은 30% 이상이다.
- ⑤ 하트세이버 수여 상황요원 수는 2020년이 2021년보다 적다.

15. 다음 <표 1>, <표 2> 및 <정보>는 甲국 아동수당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甲국 아동수당 지급액 및 비용 부담률

주소지		1인당 지급액	중앙정부 부담률	지방자치단체 부담률
수도권		10만원	10%	90%
비수도권	일반지역	10만원	15%	85%
	우대지역	12만원	15%	85%
	인구감소지역	15만원	20%	80%

<표 2> 甲국 지방자치단체 A~E의 현황
(단위: 만명, 조원)

구분	주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자체 수입	전체 세입
A	수도권	150	290	300
B	비수도권(일반지역)	100	100	150
C	수도권	120	90	120
D	비수도권(우대지역)	35	205	260
E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19	130	160

<정 보>

- 甲국은 아동수당 지급액 부담 비용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표 1>의 부담률에 따라 나누어 부담함.
- 甲국 주민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주소지를 설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지를 설정한 주민에 대해서만 아동수당 지급액 부담 비용을 부담함.
- 甲국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전체에 대해 아동수당 지급액 부담 비용을 부담함.
- 甲국은 다음과 같이 아동수당 지급액 부담 비용 변경을 계획 중임.

현행	○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지급액 부담 비용 - 지방자치단체별 중앙정부 아동수당 지급액 부담 비용 (1인당 지급액×지급대상자 수×중앙정부 부담률)의 합계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수당 지급액 부담 비용 - 1인당 지급액×지급대상자 수×지방자치단체 부담률
변경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80%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을 5%p 인하하는 대신에 중앙정부 부담률을 5%p 인상함. ○ 그 외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비용을 부담함.

※ 재정자립도(%) = $\frac{\text{자체 수입}}{\text{전체 세입}} \times 100$

<보 기>

- ㄱ. 현행대로 비용을 부담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수당 지급액 부담 비용은 B가 A보다 크다.
- ㄴ. 현행대로 비용을 부담할 경우 A~E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중앙정부가 부담할 비용은 540억원이다.
- ㄷ. 변경안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수당 지급액 부담 비용은 C가 D보다 크다.
- ㄹ. 변경안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수당 지급액 부담 비용은 D가 E보다 크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16. 다음 <표>는 2023~2025년 전국 7대 도시의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23~2025년 전국 7대 도시의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

도시	성별	2023년			2024년			2025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경제활동참가율
서울	남	2,837	2,771	70.6	2,882	2,765	71.8	2,842	2,730	71.1
	여	2,457	2,376	55.2	2,566	2,487	57.6	2,550	2,451	57.2
부산	남	980	946	69.7	957	932	68.3	947	932	68.0
	여	775	750	50.8	782	757	51.3	800	777	52.7
대구	남	710	685	70.7	711	689	70.1	694	664	68.6
	여	571	551	53.3	557	538	51.5	576	559	53.2
인천	남	965	931	74.7	980	945	74.4	996	964	74.4
	여	739	716	55.9	762	737	56.7	773	748	56.6
광주	남	431	418	69.0	443	431	70.9	446	430	71.5
	여	362	352	55.2	366	356	55.9	354	342	54.2
대전	남	461	447	72.3	463	448	72.0	461	447	71.4
	여	355	347	54.2	354	345	53.8	373	365	56.5
울산	남	358	346	72.9	357	345	72.7	366	359	73.8
	여	234	226	50.2	236	226	50.7	229	222	49.4

- ※ 1)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2) 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3) 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4) 실업률(%) = $\frac{\text{실업자 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① 2024년 남성 고용률은 서울이 대구보다 높다.
- ② 광주의 전체 실업률은 2024년이 2023년보다 높다.
- ③ 2025년 여성의 15세 이상 인구는 부산이 인천보다 많다.
- ④ 인천의 남성 실업률과 여성 실업률의 차이는 2023년이 2025년보다 크다.
- ⑤ 2023년 대전의 여성 고용률은 50% 이상이다.

17. 다음 <표>는 연도별 광업·제조업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연도별 광업·제조업 현황
(단위: 개, 천명, 십억원)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부가가치액
2000년	51,562	2,327	530,707	206,241
2005년	57,591	2,457	800,734	292,665
2010년	62,751	2,648	1,328,896	437,166
2011년	63,406	2,706	2,494,210	482,174
2012년	64,235	2,764	1,510,608	482,681
2013년	65,742	2,824	1,494,751	481,387
2014년	65,989	2,916	1,489,572	486,573
2015년	69,269	2,958	1,432,727	497,871
2016년	69,126	2,969	1,416,705	506,589
2017년	69,790	2,966	1,515,029	545,752
2018년	69,835	2,968	1,567,137	567,291

<보 기>

- ㄱ. 2000년 광업·제조업의 종사자 수당 부가가치액은 8억 8천만원 이상이다.
- ㄴ. 2010~2018년 동안 광업·제조업의 사업체 수당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매년 감소한다.
- ㄷ. 광업·제조업의 부가가치액 대비 출하액 비율은 2018년이 2010년 보다 작다.
- ㄹ. 2000년 대비 2018년 광업·제조업 출하액의 증가율은 2000년 대비 2018년 광업·제조업 부가가치액의 증가율보다 크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18. 다음 <표 1>, <표 2>는 甲국 농업안정보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甲국 농업안정보험 개요

목적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함. - 9대 전략작물(고구마, 봄감자, 양파, 마늘, 고랭지감자, 보리, 복숭아, 벼, 가을배추)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을 허용함.																			
가입기간	○ 판매기간 시작월로부터 2개월 전 ~ 판매기간 종료월 (예: 고구마의 판매기간은 4~6월이므로 가입기간은 2~6월) ※ 가입기간 시작월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가입 기간 중 중도해지도 불가능함. ○ 가입 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함.																			
국비지원 내용	○ 작물별 총 보험료의 60%를 국가가 지원하고 국비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가입자가 부담함. ※ 단, 총 보험료에 대한 국비지원액은 1억 8,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보험료 산정방법	○ 작물별 1개월 보험료(원/월) = 가입면적(ha) × 작물별 면적당 1개월 보험료(원/월 · ha) ○ 작물별 총 보험료(원) = 가입기간(월) × 작물별 1개월 보험료(원/월) <div>〈작물별 면적당 1개월 보험료〉 (단위: 원/월 · ha)<table><tr><td>고구마</td><td>봄감자</td><td>양파</td><td>마늘</td><td>고랭지감자</td></tr><tr><td>8,000</td><td>6,000</td><td>5,000</td><td>12,000</td><td>23,000</td></tr><tr><td>보리</td><td>복숭아</td><td>벼</td><td>가을배추</td><td rowspan="2"></td></tr><tr><td>26,000</td><td>25,000</td><td>10,000</td><td>7,000</td></tr></table></div> ※ 2021~2025년 동안 작물별 면적당 1개월 보험료는 동일함.	고구마	봄감자	양파	마늘	고랭지감자	8,000	6,000	5,000	12,000	23,000	보리	복숭아	벼	가을배추		26,000	25,000	10,000	7,000
고구마	봄감자	양파	마늘	고랭지감자																
8,000	6,000	5,000	12,000	23,000																
보리	복숭아	벼	가을배추																	
26,000	25,000	10,000	7,000																	

<표 2> 甲국 농업안정보험 작물별 판매기간 및 가입면적
(단위: ha)

상품	판매기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고구마	4~6월	136	178	184	412	1,369
봄감자	4~5월	399	439	525	832	12,147
양파	10~11월	166	173	146	554	616
마늘	10~11월	210	237	256	467	500
고랭지감자	5~6월	57	43	64	67	100
보리	10~12월	23	25	27	32	63
복숭아	10~11월	87	85	94	100	70
벼	4~6월	6,000	6,121	6,512	6,677	6,877
가을배추	8~9월	389	404	512	499	571

※ 2021~2025년 동안 각 작물의 판매기간은 동일함.

- ① 2025년 봄감자의 총 보험료에 대한 국비지원액은 1억 8,000만원 이다.
- ② 2024년 농업안정보험 가입면적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작물은 양파이다.
- ③ 2022~2025년 동안 농업안정보험 가입면적이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한 작물은 총 5개이다.
- ④ 2023년 벼의 총 보험료는 2억 5,000만원 이상이다.
- ⑤ 2024년 마늘의 1개월 보험료는 2024년 양파의 1개월 보험료의 2배 이상이다.

※ 다음 <표 1>, <표 2>는 2025년 아시아 지역 내 국가별 수원국 유형과 디지털 전환 정책 채택 현황 및 아시아 중점협력국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답하시오. [문 19. ~ 문 20.]

<표 1> 2025년 아시아 지역 내 국가별 수원국 유형과 디지털 전환 정책 채택 현황

지역	국가	수원국 유형	국가발전전략 내 디지털 전환 항목 채택 여부	디지털 전환 전략 채택 여부
동아시아	몽골	중저소득국	○	○
	중국	상위중소득국	○	○
동남아시아	동티모르	최저개발국	×	×
	라오스	최저개발국	○	○
	말레이시아	상위중소득국	○	○
	미얀마	최저개발국	○	○
	베트남	중저소득국	○	○
	인도네시아	중저소득국	○	○
	캄보디아	최저개발국	○	○
	태국	상위중소득국	○	○
	필리핀	중저소득국	○	○
남아시아	네팔	최저개발국	○	○
	몰디브	상위중소득국	×	○
	방글라데시	최저개발국	○	○
	부탄	최저개발국	○	○
	스리랑카	중저소득국	○	○
	아프가니스탄	최저개발국	×	○
	이란	중저소득국	×	○
	인도	중저소득국	×	○
	파키스탄	중저소득국	×	○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중저소득국	○	○
	카자흐스탄	상위중소득국	○	○
	키르기스스탄	중저소득국	○	○
	타지키스탄	중저소득국	○	○
	투르크메니스탄	상위중소득국	○	○
서아시아	레바논	상위중소득국	○	○
	시리아	저소득국	×	○
	아르메니아	상위중소득국	×	○
	아제르바이잔	상위중소득국	○	○

- ※ 1) 아시아 내 지역과 수원국은 주어진 것 외에는 없음.
2) 1인당 GNI = $\frac{\text{GNI(달러)}}{\text{인구(명)}}$
3) 수원국 유형별 분류기준
◦ 저소득국: 1인당 GNI 1,135달러 이하인 국가
◦ 중저소득국: 1인당 GNI 1,136달러 이상 4,465달러 이하인 국가
◦ 상위중소득국: 1인당 GNI 4,466달러 이상 13,845달러 이하인 국가
◦ 최저개발국: 저소득국, 중저소득국, 상위중소득국이 아닌 국가 중 1인당 GNI 등을 고려해 지정된 국가

<표 2> 2025년 아시아 중점협력국 현황

(단위: 만명, km²)

국가	인구	면적	국가	인구	면적
네팔	3,217	14.7	우즈베키스탄	3,692	44.9
라오스	769	23.7	인도	145,000	328.8
몽골	354	156.4	인도네시아	28,443	191.7
미얀마	5,492	67.6	캄보디아	1,718	18.1
방글라데시	17,374	14.8	키르기스스탄	707	20.0
베트남	10,130	33.1	필리핀	11,317	30.0

※ 2025년 아시아 지역 내 중점협력국은 주어진 국가 외에는 없음.

19. 다음 <보기> 중 <표 1>, <표 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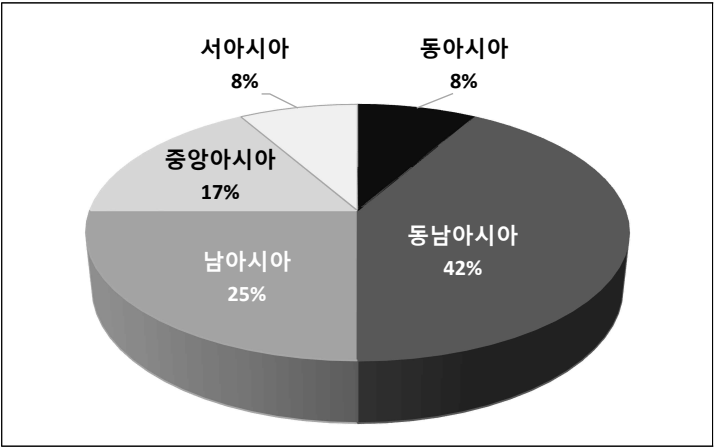
<보 기>

- ㄱ. 2025년 아시아 중점협력국 중 인도네시아가 우즈베키스탄보다 GNI가 크다.
ㄴ. 2025년 아시아 중점협력국 전체 인구 중 국가발전전략 내 디지털 전환 항목을 채택하지 않은 국가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5% 이상이다.
ㄷ. 2026년 아시아 내 다른 지역의 수원국 유형 변동 없이 동아시아 지역만 수원국에서 제외될 경우, 전체 아시아 수원국 중 상위 중소득국의 비중은 30% 미만이다.
ㄹ. 2025년 동아시아 수원국과 동남아시아 수원국 중 상위중소득국의 비중은 남아시아 수원국과 중앙아시아 수원국 중 최저개발국의 비중보다 크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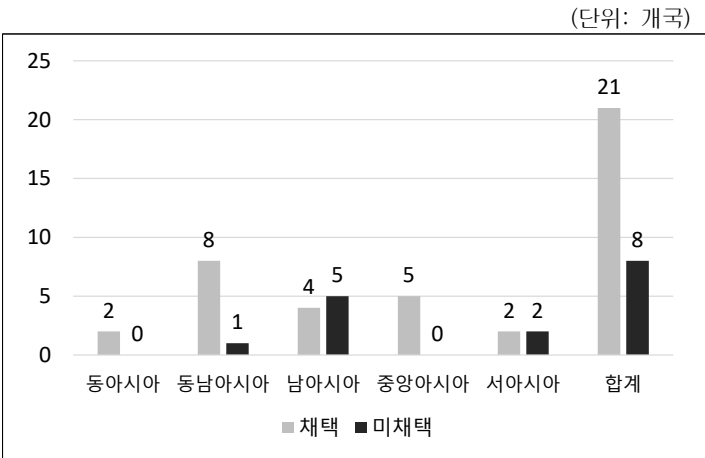
20. 다음 <표 1>, <표 2>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2025년 아시아 중점협력국의 지역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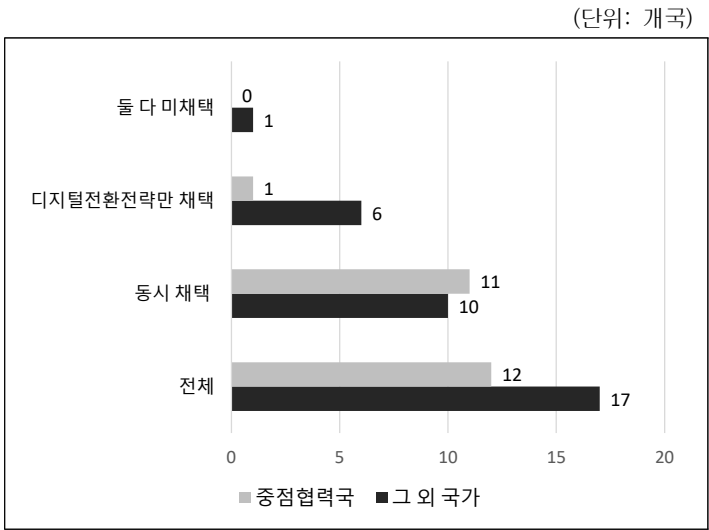


※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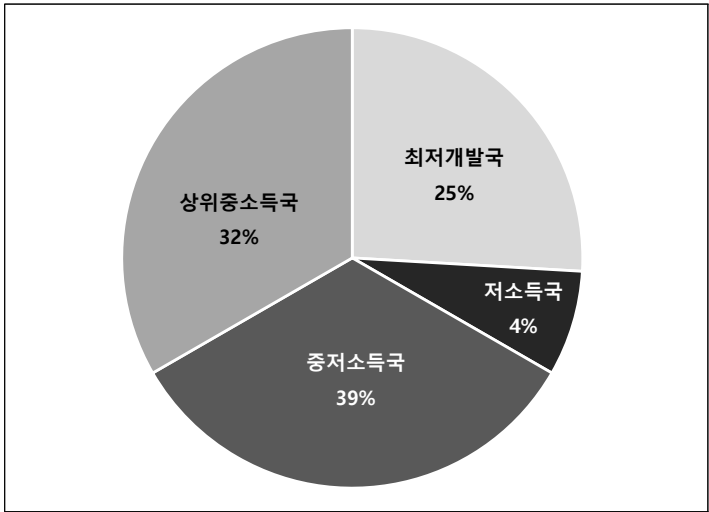
- ② 2025년 아시아 지역별 국가발전전략 내 디지털 전환 항목 채택 국가 분포



③ 아시아 수원국 중 중점협력국과 그 외 국가의 국가발전전략 내 디지털 전환 항목과 디지털 전환 전략 채택 국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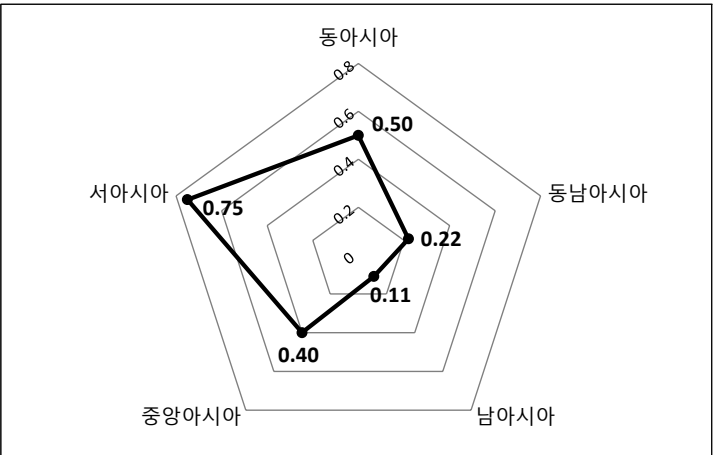


④ 2025년 아시아 수원국 유형별 디지털 전환 전략 채택 국가 분포



※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⑤ 2025년 아시아 수원국 중 각 지역별 상위중소득국 비율



※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21. 다음 <표>는 2021년 A~E 5개국 원인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보고서>를 근거로 A~E에 해당하는 국가(대한민국,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2021년 A~E 5개국 원인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톤)

국가	합계	에너지	산업 공정	농업	폐기물
A	676,647.9	587,730.6	51,397.6	21,414.9	16,104.8
B	1,163,002.3	1,013,710.1	97,045.0	33,906.1	18,341.1
C	6,340,228.3	5,196,583.3	376,383.0	598,099.1	169,162.9
D	410,791.6	285,963.8	42,322.7	66,042.1	16,463.0
E	759,600.1	642,442.2	57,046.3	54,308.5	5,803.1

※ 온실가스 배출 원인은 주어진 원인 외에는 없음.

<보 고 서>

A~E 5개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위의 <표>는 2021년 A~E 5개국 원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다. 원인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일본이며, 그 다음은 대한민국이다. 원인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산업 공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프랑스이다. 미국은 원인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 대한민국, 독일보다 작지만, 프랑스보다 크다. 그리고 원인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농업의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프랑스이고 그 다음은 미국이다.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5%이고, 5개국 중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작다.

	A	B	C	D	E
①	대한민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②	대한민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③	대한민국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④	일본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독일
⑤	일본	대한민국	프랑스	독일	미국

22. 다음 <표>는 2023년과 2024년 지역 특성과 학교급별 사교육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3년과 2024년 지역 특성과 학교급별 사교육비
(단위: 억원)

연도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특성화고	일반고	
2023	서울특별시	25,892	14,827	648	17,787	59,154
	광역시	29,008	16,475	928	15,627	62,038
	중소도시	54,608	32,779	()	31,850	120,404
	그 외 지역	14,714	7,453	309	7,073	29,549
	합계	()	71,534	3,052	72,337	()
2024	서울특별시	()	()	778	18,325	61,857
	광역시	30,390	18,108	()	17,201	66,494
	중소도시	59,524	35,427	912	()	131,388
	그 외 지역	15,821	8,571	256	7,532	32,180
	합계	132,256	78,339	2,741	78,583	291,919

※ 학교급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되며 고등학교는 특성화고와 일반고로만 구성됨.

<보 기>

- ㄱ. 2023년 중소도시의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2023년 초등학교 전체 사교육비의 50% 이하이다.
- ㄴ. 2023년 전체 학교급별 사교육비 중 중학교 사교육비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광역시이다.
- ㄷ. 2024년 고등학교 전체 사교육비 중 특성화고 사교육비 비중은 서울특별시가 광역시보다 크다.
- ㄹ. 2024년 중소도시의 특성화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23. 다음 <표 1>, <표 2>는 2016~2020년 국가별 논문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16~2020년 국가별 논문 현황
(단위: 건)

연도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미국	46,852	46,241	45,373	43,872	39,640	221,978
중국	13,384	14,312	17,291	20,910	22,523	()
일본	11,985	11,788	11,604	11,738	10,418	57,533
독일	9,766	9,760	9,688	9,571	8,785	47,570
영국	9,141	9,035	9,029	8,295	7,632	43,132
프랑스	5,580	5,731	5,561	5,215	4,398	26,485
한국	3,803	3,497	3,432	3,639	3,702	18,073
스웨덴	1,966	1,822	1,932	1,613	1,315	8,648
이탈리아	1,503	1,617	1,611	1,811	1,965	8,507
핀란드	2,031	1,644	1,408	1,448	1,315	7,846
스페인	1,354	1,377	1,378	1,381	1,482	6,972
오스트리아	1,210	1,324	1,251	1,305	1,189	6,279
튀르키예	348	376	413	368	316	1,821
폴란드	284	284	287	302	234	1,391
포르투갈	138	132	119	94	95	578
그리스	76	84	72	80	75	387

※ 해당 기간 동안 논문이 게재된 국가는 주어진 국가 외에는 없음.

<표 2> 2016~2020년 누적 논문건수 상위 8개국의 논문 현황
(단위: 건, 개)

순위	국가	누적 논문건수	누적 우수저널 논문건수	대학 수
1	미국	221,978	99,651	1,856
2	중국	()	24,323	844
3	일본	57,533	19,042	676
4	독일	47,570	19,408	415
5	영국	43,132	22,927	165
6	프랑스	26,485	11,584	146
7	한국	18,073	8,403	105
8	스웨덴	8,648	3,133	104

<보 기>

- ㄱ. 2016~2020년 누적 논문건수 상위 8개국의 누적 논문건수 총합 중 미국, 중국, 일본의 누적 논문건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65% 이상이다.
- ㄴ. 2016~2020년 누적 논문건수 대비 누적 우수저널 논문건수의 비율이 가장 큰 국가는 영국이다.
- ㄷ. 2016~2020년 대학당 누적 우수저널 논문건수는 일본이 중국보다 많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24. 다음 <표>와 <정보>는 甲카페 커피 메뉴별 커피농도 및 추출수율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甲카페 커피 메뉴별 커피농도 및 추출수율
(단위: g, %)

메뉴	사용한 원두의 양	커피성분	추출된 커피의 양	커피농도	추출수율
A	24	3.6	300	1.2	()
B	23	4.6	400	1.15	()
C	27	5.4	400	1.35	()
D	()	()	300	1.5	18
E	()	()	300	1	24

※ 1) 커피농도(%) = $\frac{\text{커피성분}}{\text{추출된 커피의 양}} \times 100$
2) 추출수율(%) = $\frac{\text{커피성분}}{\text{사용한 원두의 양}} \times 100$

<정 보>

커피농도 및 추출수율에 관한 표준 가이드에 따르면 커피의 권장 농도 구간은 1.2% 이상 1.35% 미만이며 커피의 권장 추출수율 구간은 17% 이상 22% 미만이다.

<보 기>

- ㄱ. A~E 중 커피성분이 가장 많은 메뉴는 D이다.
ㄴ. 사용한 원두의 양은 D가 E의 2배이다.
ㄷ. A~E 중 권장 추출수율 구간 내에 있는 메뉴는 3개이다.
ㄹ. B를 만들 때, 추출수율 및 추출된 커피의 양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원두의 양을 현재보다 1g 더 사용한다면 B의 커피농도는 커피의 권장 농도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5. 다음 <표>는 2022~2024년 甲국 과목별 학원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2~2024년 甲국 과목별 학원 현황
(단위: 개, 명, 십억원)

구분	연도	전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학원수	2022년	598,404	573,996	935	72	23,401
	2023년	612,506	587,949	913	77	()
	2024년	609,974	583,113	862	80	25,919
종사자	2022년	1,337,919	1,052,027	26,142	37,598	222,152
	2023년	1,378,170	1,086,950	26,405	40,635	224,180
	2024년	()	1,223,335	26,121	51,604	234,841
매출액	2022년	232,486	81,864	63,359	23,377	63,886
	2023년	226,620	88,633	44,184	29,102	64,701
	2024년	254,687	97,469	52,026	33,037	72,155

※ 학원 과목에는 수학, 영어, 사회, 과학만 있음.

<보 기>

- ㄱ. 2023년과 2024년 과학 학원의 수는 각각 전년 대비 증가한다.
ㄴ. 전체 학원 종사자 중 사회 학원 종사자의 비중은 2024년이 2023년보다 크다.
ㄷ. 2024년 수학 학원 1개당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ㄹ. 2022년 영어 학원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20억원 이상이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26. 다음 <표 1>, <표 2>는 2020~2024년 산불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20~2024년 산불 발생 현황
(단위: 건, ha,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발생건수	653	620	349	596	279
피해면적	3,255	2,920	766	4,992	132
피해금액	268,910	158,141	36,125	285,429	9,244

<표 2> 2020~2024년 원인별 산불 발생건수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입산자 실화	179	217	133	170	49
논·밭두렁 소각	69	49	22	56	24
쓰레기 소각	89	65	27	73	28
담뱃불 실화	22	75	34	56	36
성묘객 실화	20	9	16	23	6
어린이 불량난	2	1	3	1	1
건축물 화재	58	54	20	41	14
기 타	214	150	94	176	121

<보 기>

- ㄱ. 2020~2024년 동안 산불 발생건수당 피해면적은 2020년이 가장 넓다.
- ㄴ. 2020년 대비 2023년 산불 발생 피해금액은 5% 이상 증가했다.
- ㄷ. 2020~2024년 동안 산불 발생건수 중 담뱃불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건수의 비중은 2024년이 가장 크다.
- ㄹ. 2020~2024년 동안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건수는 매년 전체 산불 발생건수의 20% 이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7. 다음 <표 1>, <표 2>는 2025년 A~D가계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및 재무건전성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2025년 A~D가계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단위: 천원)

구분	A	B	C	D
총소득	65,000	90,000	50,000	85,000
총지출	49,000	60,000	45,000	56,000
총자산	550,000	1,000,000	500,000	700,000
	금융자산	50,000	200,000	120,000
	부동산	500,000	800,000	380,000
총부채	300,000	450,000	240,000	250,000
총부채상환액	24,000	35,000	6,000	20,000

<표 2> 재무건전성 평가지표와 평가기준
(단위: %)

평가지표	산출식	평가기준
가계수지지표	$\frac{\text{총지출}}{\text{총소득}} \times 100$	70% 이하
부채부담지표	$\frac{\text{총부채}}{\text{총자산}} \times 100$	40% 이하
부채상환지표	$\frac{\text{총부채상환액}}{\text{총소득}} \times 100$	30% 이하
금융자산비중지표	$\frac{\text{금융자산}}{\text{총자산}} \times 100$	30% 이상

※ 각 평가지표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면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재무적으로 건전하지 못함. 예를 들어, A의 금융자산비중지표(%)는 $\frac{50,000}{550,000} \times 100$ 으로 30% 미만이므로 재무적으로 건전하지 못함.

- ① 2025년 A가계는 4개의 평가지표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② 가계수지지표를 적용할 때 2025년 B가계와 D가계는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A가계와 C가계는 재무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
- ③ 2025년 C가계는 4개의 평가지표 중 부채상환지표의 평가기준만 충족한다.
- ④ 2025년 D가계는 가계수지지표의 평가기준과 부채부담지표의 평가기준만 충족한다.
- ⑤ 2025년 A~D가계는 모두 금융자산비중지표의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28. 다음 <표 1>, <표 2>는 2016년과 2021년 주택 외 거처 유형별 가구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2016년 주택 외 거처 유형별 가구 현황
(단위: 가구)

구분		숙박업소	판잣집	고시원	근무지 내 공간	기타	합계
전체 가구		30,505	6,629	151,459	70,315	110,593	369,501
지역	수도권	6,656	3,043	130,658	18,092	31,737	190,186
	비수도권	23,849	3,586	20,801	52,223	78,856	179,315

<표 2> 2021년 주택 외 거처 유형별 가구 현황
(단위: 가구)

구분		숙박업소	판잣집	고시원	근무지 내 공간		기타	합계
					유주택자	무주택자		
전체 가구		58,155	10,132	158,374	65,311	104,168	46,986	443,126
지역	서울	3,037	1,467	81,884	771	1,346	4,385	92,890
	인천·경기	18,167	5,452	55,372	16,522	27,676	14,381	137,570
	비수도권	36,951	3,213	21,118	48,018	75,146	28,220	212,666

※ 수도권에 속하는 지역은 서울, 인천·경기임.

- ① 2021년 주택 외 거처 유형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는 2016년 주택 외 거처 유형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 대비 25% 이상 증가했다.
- ② 2021년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는 2021년 주택 외 거처 유형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의 30% 미만이다.
- ③ 2016년 대비 2021년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 중 판잣집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증가했다.
- ④ 2021년 근무지 내 공간에 거주하는 가구 중 무주택자의 비중은 60% 미만이다.
- ⑤ 2016년 대비 2021년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 중 수도권에 위치한 가구의 비중은 감소했다.

29. 다음 <표 1>, <표 2>는 2020~2024년 병역의무자 국가별 국외여행 허가 인원 현황 및 2024년 국가별·목적별 외래객 입국 인원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표 1>, <표 2>와 <조건>을 근거로 A~E 중 가, 라에 해당하는 국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단, <표 1>, <표 2>의 5개 국가들은 동일하나 표기된 순서는 다르다)

<표 1> 2020~2024년 병역의무자 국가별 국외여행 허가 인원 현황
(단위: 명)

연도 국가	2020	2021	2022	2023	2024
가	5,400	4,419	6,856	6,609	6,697
나	387	225	656	946	1,006
다	269	163	635	916	879
라	831	278	233	1,322	2,758
마	561	434	720	908	979

<표 2> 2024년 국가별·목적별 외래객 입국 인원 현황
(단위: 명)

목적 국가	관광	상용	공용	유학연수	기타	합계
A	35,560	372	146	739	12,607	49,424
B	245,072	1,044	156	742	3,532	250,546
C	7,248	111	31	522	1,146	9,058
D	117,549	78	9	380	680	118,696
E	249,519	3,279	224	12,790	40,975	306,787

<조 건>

- 2022~2024년 동안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인원이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하는 국가는 A, B이다.
- 2024년 국가별 외래객 입국 목적 중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85% 미만인 국가는 가~마 중 2021년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인원수 하위 3개국이다.
- 2024년 국가별 외래객 입국 목적 중 유학연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순서대로 A~E를 나열하면 5개국 중 하위 2개국은 가, 마이다.
- 기타를 제외하고, 2024년 각 외래객 입국 목적별로 A~E를 인원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모든 입국 목적에서 상위 2개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다, 마이다.

- | | 가 | 라 |
|---|---|---|
| ① | D | A |
| ② | D | C |
| ③ | D | E |
| ④ | B | A |
| ⑤ | B | C |

30. 다음 <표 1>, <표 2>는 2020~2024년의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수출입액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2020~2024년 한국의 대(對) 중앙아시아 5개국 수출액
(단위: 천달러)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키르기스스탄	74,143	112,506	372,854	1,171,716	1,785,816
카자흐스탄	1,997,528	769,065	1,665,096	1,968,393	2,345,106
투르크메니스탄	69,000	8,834	8,544	16,927	56,823
타지키스탄	46,074	51,492	92,675	115,013	188,906
우즈베키스탄	1,704,233	1,879,453	2,183,539	2,369,872	1,719,861

<표 2> 2020~2024년 한국의 대(對) 중앙아시아 5개국 수입액
(단위: 천달러)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키르기스스탄	508	432	540	2,220	3,423
카자흐스탄	1,090,197	2,442,299	4,869,471	3,568,110	1,260,023
투르크메니스탄	5	31	35	2	38
타지키스탄	341	44	368	174	6,012
우즈베키스탄	18,161	22,052	27,932	90,299	15,621

※ 1) 무역수지 = 수출액 - 수입액
2) 총교역액 = 수출액 + 수입액

- ① 중앙아시아 5개국 중 2022~2024년 동안 대(對) 한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한 국가의 수는 3개이다.
- ② 2023년 한국의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대한 수출액의 합은 2023년 한국의 대(對) 중앙아시아 5개국 수출액의 합의 50% 미만이다.
- ③ 2020~2024년 동안 매년 한국의 대(對) 우즈베키스탄 무역수지는 한국의 대(對) 중앙아시아 5개국 무역수지 중 가장 크다.
- ④ 2023년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총교역액은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했다.
- ⑤ 2021년 한국의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과의 총교역액의 합은 2021년 한국의 대(對) 중앙아시아 5개국 총교역액의 합의 5% 이상이다.

31. 다음 <표 1>, <표 2>는 A~E 5개국의 주택가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2015~2024년 A~E국 주택가격지수

구분	2015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A	100	107.5	116.9	119.3	110.9	110.9
B	100	144.6	150.1	151.4	151.3	153.6
C	100	108.6	115.1	124.8	128.5	132.1
D	100	134.5	156.8	178.0	186.6	196.7
E	100	119.9	129.7	141.7	142.1	143.5

※ 주택가격지수 = $\frac{\text{해당 연도 평균주택가격}}{\text{2015년 평균주택가격}} \times 100$

<표 2> 2015년 A~E국 평균주택가격
(단위: 만달러)

구분	A	B	C	D	E
2015년 평균주택가격	156	273	39	111	179

- ① A~C국을 2021년 대비 2022년 평균주택가격의 상승폭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A국, C국, B국 순이다.
- ② A~E국 중 2021년 대비 2024년 주택가격지수의 상승률이 10% 이상인 국가는 2개국이다.
- ③ A~E국 중 2020년 대비 2024년 주택가격지수의 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는 C국이다.
- ④ 2023년 D국의 평균주택가격은 2020년 E국의 평균주택가격보다 높다.
- ⑤ 2020년 대비 2024년 A국의 평균주택가격은 5% 이상 상승했다.

32. 다음 <표>는 2021~2023년 관리대상사업의 유형별, 분야별 사업 수 및 총사업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1~2023년 관리대상사업의 유형별, 분야별 사업 수 및 총사업비
(단위: 개, 백만달러)

연도			2021		2022		2023	
구분	유형	분야	사업 수	총사업비	사업 수	총사업비	사업 수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타당성조사 면제사업	R&D	37	855.3	24	665.4	51	1,540.1
		비R&D	56	1,941.4	71	2,313.8	66	2,381.7
	타당성조사 실시사업	R&D	28	717.6	31	824.7	18	537.4
		비R&D	85	3,484.2	67	2,769.5	73	2,828.5

※ 1) 관리대상사업은 타당성조사면제사업과 타당성조사실시사업으로만 구성됨.
2) 타당성조사 관련 사업은 관리대상사업으로 한정함.

<보 기>

- ㄱ. 2021~2023년 관리대상사업 총사업비 합계에서 타당성조사실시사업의 총사업비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50% 이상이다.
- ㄴ. 2022년 관리대상사업 중 타당성조사면제사업 R&D 분야의 사업당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 ㄷ. 2024년 관리대상사업 R&D 분야 총사업비 합계가 26억 달러이고 2024년 타당성조사실시사업 R&D 분야 총사업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34%라고 할 때, 2024년 타당성조사면제사업 R&D 분야 총사업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 이상이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33. 다음 <표>는 甲시 상품 유형별 택배 물류량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甲시 상품 유형별 택배 물류량
(단위: 건)

지역 \ 유형	가구	도서	가전	건강	스포츠	식품	육아	의류
가	175	29	497	645	146	293	83	547
나	162	45	529	657	140	330	95	624
다	116	131	342	654	78	209	43	474
라	78	52	269	395	58	205	40	326
마	312	122	961	1,247	250	679	142	895
바	314	138	981	1,342	256	710	149	1,089
사	228	112	696	934	170	463	84	572
아	209	51	580	852	190	446	106	717
자	106	30	354	458	116	273	44	470
차	133	21	358	423	110	252	55	382

※ 1) 甲시에는 가~차 지역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
2) 택배 물류량의 상품 유형은 주어진 유형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

<보 기>

- ㄱ. 마 지역은 모든 상품 유형에서 택배 물류량이 甲시의 전체 지역 중 두 번째로 크다.
- ㄴ. 甲시의 전체 지역 중 택배 물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바 지역이다.
- ㄷ. 甲시의 건강 유형의 택배 물류량 총합은 도서 유형의 택배 물류량 총합의 10배 미만이다.
- ㄹ. 甲시의 지역별로 상품 유형을 택배 물류량이 많은 순으로 나열하면 가, 나, 바 지역의 상품 유형 순서는 동일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4. 다음 <표 1>, <표 2> 및 <표 3>은 2021~2024년 甲국 소방특별회계 및 소방공무원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21~2024년 甲국 소방특별회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건비	4,348,423	()	()	5,990,280
소방정책사업비	2,255,477	1,995,278	2,137,364	2,053,443
합 계	6,603,900	7,128,223	7,662,849	8,043,723

※ 甲국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로만 구성됨.

<표 2> 2021~2024년 甲국 소방특별회계 항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소방 교부세	지역자원 시설세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2021년	926,979	1,520,073	3,941,243	67,454	148,151
2022년	793,327	1,592,506	4,465,384	93,170	183,836
2023년	889,794	1,627,850	4,936,599	71,794	136,812
2024년	776,977	1,405,986	5,695,384	44,960	120,416

※ 甲국 소방특별회계 항목은 제시된 항목 외에는 없음.

<표 3> 2021~2024년 甲국 소방공무원 현황
(단위: 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9,451	62,909	64,501	64,831

<보 기>

- ㄱ. 甲국 소방특별회계 중 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4년이 2023년보다 크다.
- ㄴ. 2021~2024년 동안 甲국 소방특별회계에서 소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 ㄷ. 2021~2024년 동안 甲국 소방특별회계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 ㄹ. 2024년 甲국 소방공무원 1인당 소방특별회계는 1억 2,000만원 이상이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35. 다음 <표 1>, <표 2> 및 <정보>는 甲은행이 활용하는 재무평점시스템 및 甲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3개 기업들의 재무지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甲은행의 재무평점시스템

영역	재무비율	등급(평점)			
		4등급(5점)	3등급(10점)	2등급(15점)	1등급(20점)
유동성	당좌비율	100% 이하	1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안정성	이자보상비율	50% 이하	50% 초과 80% 이하	80% 초과 120% 이하	120% 초과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활동성	재고자산회전율	2회 이하	2회 초과 3회 이하	3회 초과 5회 이하	5회 초과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표 2> 평가대상기업의 표준비율과 기업의 영역별 재무지수

영역	재무비율	가중치	표준비율 (%)	재무지수		
				A기업	B기업	C기업
유동성	당좌비율	0.2	150	250	150	320
안정성	이자보상비율	0.2	100	90	250	220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0.2	10	325	94	127
활동성	재고자산회전율	0.2	3	120	85	256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0.2	10	115	135	45

※ 1) 재무비율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2) 재무지수 = $\frac{\text{재무비율}}{\text{표준비율}} \times 100$

<정 보>

- 각 기업의 종합재무평점은 5개 영역별 재무비율에 해당하는 평점을 합산한 값이다.
- 각 기업의 종합재무지수는 5개 영역별 ‘재무지수×가중치’를 합산한 값이다.
- 종합재무평점이 80점 이상이고 종합재무지수가 100 이상인 기업은 대출 가능 기업으로 판정하며, 그렇지 않은 기업은 대출 불가능 기업으로 판정한다.

- ① 甲은행의 재무평점시스템 5개 영역에서 1등급이 2개 이상인 기업은 2개이다.
- ② 甲은행의 종합재무평점과 종합재무지수에 근거하여 대출 가능 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은 2개이다.
- ③ 甲은행의 재무평점시스템 5개 영역에서 최고 평점 기업과 최저 평점 기업의 평점 차이가 10점인 영역은 3개이다.
- ④ 甲은행의 재무평점시스템 5개 영역에서 동일한 등급을 받은 기업이 2개 이상인 영역은 3개이다.
- ⑤ A~C 중 종합재무평점이 가장 높은 기업은 종합재무지수도 가장 높다.

36. 다음 <표>는 2022년과 2023년 전국 7대 도시 지역별 의사 수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2년과 2023년 전국 7대 도시 지역별 의사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2022년					2023년				
	합계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합계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전국	112,321	6,090	3,137	9,637	93,457	114,699	6,041	3,206	9,812	95,640
서울	32,704	1,362	1,369	4,167	25,806	33,868	1,506	1,380	4,382	26,600
부산	8,356	377	226	653	7,100	8,460	377	222	654	7,207
대구	6,192	191	185	636	5,180	6,335	211	215	615	5,294
인천	5,375	276	158	387	4,554	5,661	295	177	346	4,843
광주	3,751	157	103	305	3,186	3,783	151	108	299	3,225
대전	3,773	184	144	379	3,066	3,793	180	144	396	3,073
울산	1,808	103	27	90	1,588	1,838	103	29	97	1,609

※ 의사는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만 있음.

- <보 기>
- ㄱ. 2023년 울산의 전체 의사 수 대비 전문의 수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ㄴ. 2022년과 2023년 전국에서 의사 수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는 대구이다.

ㄷ. 전국 7대 도시 중 2023년 레지던트 수의 전년 대비 감소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인천이다.

ㄹ. 2022년 전체 의사 수 대비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수 합계 비율은 전국이 대전보다 높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7. 다음 <표 1>, <표 2>는 2023년 아시아 비료생산량 및 비료소비량 상위 10개국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2023년 아시아 비료생산량 상위 10개국
(단위: 톤)

종류 \ 국가	질소질	인산질	칼리질	합계
중국	31,039,281	13,432,138	2,048,363	46,519,782
인도	17,107,800	4,878,400	()	21,986,200
사우디아라비아	3,539,967	2,345,914	()	5,885,881
인도네시아	3,963,696	575,939	()	4,539,635
파키스탄	3,477,144	493,669	11,414	()
이스라엘	()	457,705	2,366,015	2,823,720
카타르	2,590,600	0	0	2,590,600
베트남	()	539,458	0	2,337,774
요르단	151,100	383,400	1,598,200	()
이란	1,826,568	0	0	1,826,568

※ 1) 비료는 질소질, 인산질, 칼리질만 있음.
2) 잉여생산 = 비료생산량 - 비료소비량

<표 2> 2023년 아시아 비료소비량 상위 10개국
(단위: 톤)

종류 \ 국가	질소질	인산질	칼리질	합계
중국	24,669,979	9,466,785	8,912,266	43,049,030
인도	20,456,400	8,306,600	1,878,600	30,641,600
인도네시아	2,984,941	()	1,964,679	5,531,763
파키스탄	3,808,775	994,885	()	4,849,395
태국	2,684,041	781,546	1,084,379	4,549,966
방글라데시	()	1,034,983	554,308	3,088,235
튀르키예	1,948,185	735,854	145,768	2,829,807
베트남	()	645,547	415,373	2,825,622
말레이시아	398,131	147,251	()	2,295,198
우즈베키스탄	961,192	75,666	184,097	()

※ 1) 비료는 질소질, 인산질, 칼리질만 있음.
2) 잉여생산 = 비료생산량 - 비료소비량

- ① 2023년 아시아 비료생산량 상위 10개국 중 비료의 잉여생산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중국이다.
- ② 2023년 아시아 비료소비량 상위 10개국 중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질소질 비료소비량이 인산질과 칼리질 비료소비량의 합보다 크다.
- ③ 2023년 아시아 비료소비량 상위 10개국 중 질소질 비료소비량이 베트남보다 많은 국가는 6개이다.
- ④ 2023년 아시아 비료소비량 상위 10개국 중 비료생산량보다 비료소비량이 많은 국가는 최대 9개이다.
- ⑤ 2023년 아시아 비료생산량 상위 10개국 중 생산하지 않는 비료 종류가 있는 국가는 7개이다.

38. 다음 <표 1>, <표 2> 및 <정보>는 2021~2024년 甲회사의 제품 공정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2021~2024년 공정별 공정 투입량과 공정 완성량
(단위: 톤)

연도 \ 공정	2021		2022		2023		2024	
	투입량	완성량	투입량	완성량	투입량	완성량	투입량	완성량
제1공정	235	227	568	542	450	398	795	772
제2공정	227	217	542	532	398	356	772	725
제3공정	217	205	532	495	356	335	725	703
제4공정	205	190	495	476	335	320	703	664
제5공정	190	170	476	462	320	310	664	621

<표 2> 2021~2024년 공정별 공정 완성량 총원가
(단위: 억원)

연 도 \ 공 정	2021	2022	2023	2024
제1공정	568	867	1,114	1,930
제2공정	586	958	819	1,740
제3공정	451	1,040	637	1,828
제4공정	361	1,095	832	1,926
제5공정	476	1,201	713	1,677

<정 보>

- 제 n 공정의 선행 공정은 제 $n-1$ 공정이고, 제 k 공정의 후행 공정은 제 $k+1$ 공정임. 단, 제1공정의 선행 공정과 제5공정의 후행 공정은 없음.
- 선행 공정의 공정 완성량은 후행 공정의 공정 투입량임.
- 공정 완성량 = 공정 투입량 - 공정 폐기량
- $\text{공정 수율}(\%) = \frac{\text{공정 완성량}}{\text{공정 투입량}} \times 100$
- $\text{직행률}(\%) = \frac{\text{제5공정 완성량}}{\text{제1공정 투입량}} \times 100$
- $\text{공정 손실률}(\%) = \frac{\text{공정 폐기량}}{\text{공정 투입량}} \times 100$
- $\text{공정 완성량 단위당 원가} = \frac{\text{공정 완성량 총원가}}{\text{공정 완성량}}$

- ① 2021년 제1공정부터 제5공정까지 후행 공정의 공정 수율은 선행 공정의 공정 수율 대비 연속적으로 하락했다.
- ② 2021~2024년 동안 제3공정의 공정 손실률이 가장 낮은 연도는 2024년이다.
- ③ 2022~2024년 동안 직행률은 매년 전년 대비 하락했다.
- ④ 2023년 공정 폐기량이 가장 적은 공정의 공정 완성량 단위당 원가는 2022년 공정 폐기량이 가장 적은 공정의 공정 완성량 단위당 원가보다 높다.
- ⑤ 2021~2024년 동안 매년 제2공정부터 제5공정까지 후행 공정의 공정 완성량 단위당 원가가 선행 공정의 공정 완성량 단위당 원가와 대비하여 상승한 연도는 1개년이다.

※ 다음 <표 1>, <표 2> 및 <표 3>은 2021~2023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甲시·乙시·丙시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통계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답하시오. [문 39. ~ 문 40.]

<표 1> 2021년 행정심판통계
(단위: 건)

구분 \ 위원회	접수	심리의결				취하·이송
		인용	기각	각하	합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229	1,710	14,892	2,271	18,873	1,140
甲시 행정심판위원회	646	153	558	266	977	121
乙시 행정심판위원회	1,741	402	1,244	402	()	192
丙시 행정심판위원회	290	98	135	34	267	27

※ $\text{행정심판 인용률}(\%) = \frac{\text{인용건수}}{\text{인용건수} + \text{기각건수}} \times 100$

<표 2> 2022년 행정심판통계
(단위: 건)

구분 \ 위원회	접수	심리의결				취하·이송
		인용	기각	각하	합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1,647	1,468	15,581	4,110	21,159	1,527
甲시 행정심판위원회	928	110	404	187	701	128
乙시 행정심판위원회	1,654	354	930	301	()	128
丙시 행정심판위원회	387	141	154	64	359	49

※ $\text{행정심판 인용률}(\%) = \frac{\text{인용건수}}{\text{인용건수} + \text{기각건수}} \times 100$

<표 3> 2023년 행정심판통계
(단위: 건)

구분 \ 위원회	접수	심리의결				취하·이송
		인용	기각	각하	합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0,896	1,247	15,994	10,646	27,887	1,904
甲시 행정심판위원회	1,243	223	576	518	1,317	201
乙시 행정심판위원회	2,282	372	998	742	()	200
丙시 행정심판위원회	468	48	226	182	456	38

※ $\text{행정심판 인용률}(\%) = \frac{\text{인용건수}}{\text{인용건수} + \text{기각건수}} \times 100$

39. 다음 <보기> 중 <표 1>, <표 2> 및 <표 3>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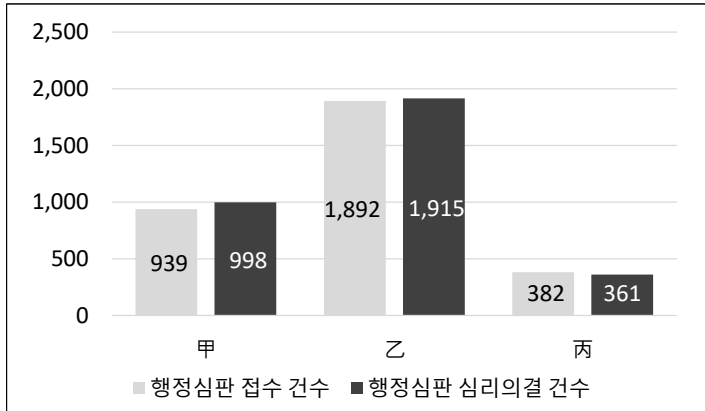
- ㄱ. 2021~2023년 동안 丙시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접수 건수 대비 인용 건수의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연도를 나열하면 2022년, 2021년, 2023년 순이다.
- ㄴ. 2021~2023년 동안 甲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 건수는 매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 건수의 5% 미만이다.
- ㄷ. 전년 대비 행정심판 접수 건수 증가율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丙시가 甲시보다 낮다.
- ㄹ. 2021~2023년 동안 乙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접수 건수 보다 행정심판 심리의결 건수가 많은 연도는 2021년이 유일하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40. 다음 <보기> 중 <표 1>, <표 2> 및 <표 3>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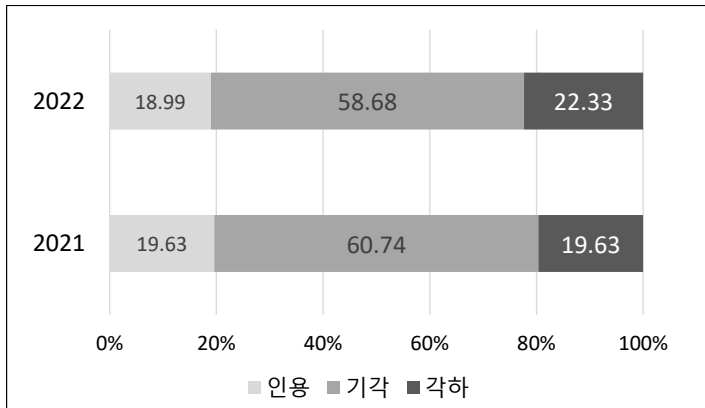
<보 기>

ㄱ. 2021~2023년 3개년 평균 행정심판 접수 및 심리의결 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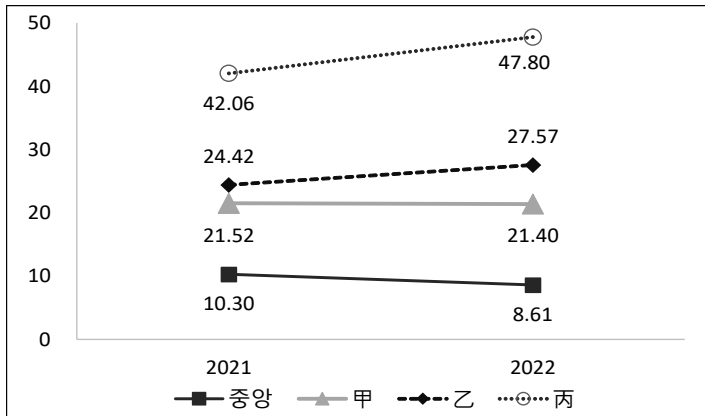
※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ㄴ. 2021년과 2022년 乙시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의결 결과별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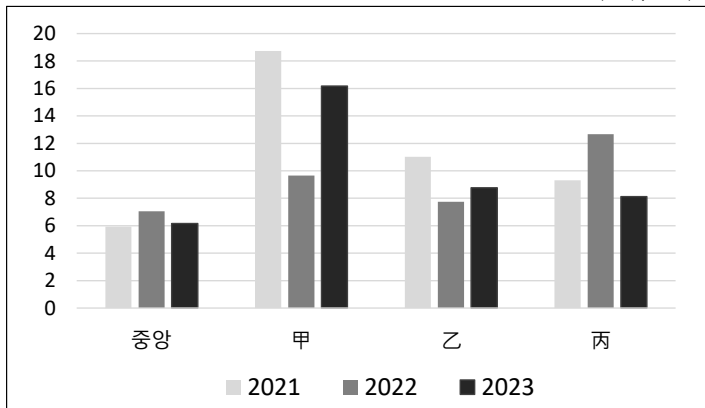
※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ㄷ. 2021년과 2022년 행정심판위원회별 행정심판 인용률
(단위: %)



※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ㄹ. 연도별 행정심판위원회의 접수 건수 100건당 취하·이송 건수
(단위: 건)



※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